

안녕하세요, 2020 수능에서 수학 가형 100점을 맞은 공군병장 아이유입니다.

성적표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대치동의 대형 학원들 중 하나에서 조교 제의를 받았고

큰 이변이 없다면, 내년에는 대치동에서 저를 보실 분들도 몇몇 있겠군요.

저 같은 경우는 중학수학부터 시작해서 조급함 없이 천천히 올라온 케이스입니다.

독서실을 다니다가 독재학원으로 중간에 옮겼는데, 이제 막 마플교과서를 끝내고 온 저에게는 책꽂이마다 뉴런이 꽃혀 있고, 드릴을 손에 들고 다니는 다른 학생들을 보면서 주눅이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나 아무 생각 없이 주어진 양을 지키며 성실하게 하였고,

애매하게 풀었는데 맞은 문제들은 넘어가지 않고 다시 푸는 냉정함을 유지하였으며,

실모를 망친 날에는 다음에는 맞겠지~ 하는 낙관적인 생각을 하면서 좋은 결과로 마무리하게 된 거 같습니다.

이과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은, 어쩌면 수험 생활에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할 과목이 수학일 것입니다.

정시 배치표를 둘러본 입장에서, 수학을 잘 맞으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학을 갈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그러니 이과를 선택하신 분들은, 수학을 끝까지 잘 완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모의고사에서 수학을 잘 못본거 같으면, 그 다음 과목까지 영향을 줄 정도로

수학에 대한 압박감은 상당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고통을 상대적으로 덜 느끼고 빨리 빠져나올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본인의 루틴이나 공부법이 확고하신 분들은 안 읽으셔도 되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가이드라인 정도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글의 주제는 *수학 강의와 병행하면 효율적인 학습법.* 입니다.

0. 서론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학 진도를 인강 선생님의 교재로 나갈 것입니다.

저는 배성민 선생님의 빌드업, 드리블, 드리블2, 카운터 어택 커리큘럼 진도를 나갔는데

현우진 선생님은 드릴과 킬링캠프, 이창무 선생님은 문제해결전략(확통)만 들었기에

배성민 선생님을 제외한 다른 선생님들의 커리큘럼을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수험생활에서 6월 전까지는 진도를 꾸준히 따라가다가

6월 평가원을 보고 나서 점수가 잘 안나온다고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바꾸는 경향이 많은데

그럴 때는 선생님의 강의를 정말 나랑 안맞았는지, 내가 소홀하게 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보시고 결정해 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6평은 평가원에서 그동안 경향과 다른 새로운 트렌드를 실험하는 경향이 많으며
6평 점수가 안나온 사람 대부분은 본인의 학습 진도가 덜 완성되었거나, 아직 문제를 푸는 태도가
교정이 덜 된 상태일 것입니다.
한번만 신중히 생각해 주세요. 어쩌면 얼마 안 남은 시간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6평에서 73점이라는 3등급 점수를 맞았음에도, 그냥 묵묵하게 했습니다.
그냥 저 자신을 믿고 갔습니다. 이걸 인강 선생님 잘못이 아니라
아직 실력이 덜 쌓인 제 잘못인걸 누구보다 알고 있었기에, 그리고 그 해결책도 알고 있었
기에.

1. 똑같은 시간을 쓰지만, 효율을 높여줄 수 있는 공부 방법

이제부터는 어떤 선생님의 강의를 듣든, 공통으로 적용되는 학습법을 써볼까 합니다.
드릴, 문해전 등등 심화형 N제로 갈수록 효율성을 증폭시키는 것이 요즘 트렌드의 수능에서
점수상승의 비결이기 때문에, 6월 이후에 읽으실 분들이라면 꼭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 강의를 듣기 전

아예 처음 시작하는 개념 강의가 아닌 이상, 본인이 풀 수 있는 문제는 인강 진도표를 보고
문제를 미리 풀고 듣는 게 원칙입니다.
문제를 풀 때는, 스톱워치를 두고 타이머를 키고 푸시기 바랍니다.
준킬러의 경우 1-2분을 잡고 푸시면 긴장감이 생겨서 집중을 잘 하게 됩니다.
저렇게 하면 내가 얼마나 공부했는지 순수 공부시간도 알 수 있어서 좋습니다

문제를 풀고는 채점을 하는 것이 좋으며, 본인이 무의식적으로 풀이를 볼까 무서운 분은 해
설지를 집이나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빠른 정답만 가지고 채점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문제가 나올 경우,

- 1.스톱워치로 타이머를 10분동안 설정하고 문제를 풀어봅니다.
- 2.만약 그 문제가 안풀릴 경우, 일단은 별표를 치고 넘어갑니다.
- 3.주어진 분량을 다 풀고 나서 다시 그 문제를 10분을 재고 풀어봅니다.

처음에 보았을 때보다는 조금 더 생각을 할 수 있을텐데

이때도 안 풀린다면, 포스트잇을 붙여놓는 방식으로

내가 이 문제를 어떤 조건을 몰라서 (공식이나 접근법) 별표를 치는건지 써 놓으시면

강의를 듣고 나서 문제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틀린 문제가 나올 경우, 이것은 본인이 타이머를 통해 집중한 상태에서 풀었다면,

본인의 풀이를 지우지 마시고, 해설지와 본인의 풀이를 비교하시고, 어디서 엇나갔는지 밑줄
긋고 **빨간펜**으로 작성해 보기 바랍니다

(이 조건을 못봐서 틀렸다, 이 공식을 잘못 썼다, 계산을 이걸로 잘못보았다)

1. 조건을 못봐서 틀린 경우, 문제의 발문에 밑줄을 치세요. 시험장에서도 안보이면 안되니
까!
2. 공식을 모르거나 틀린 경우, 그 공식을 여백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3. 계산을 잘못 한 경우, 정답을 옆에 쓰고 어디서 틀렸는지 기록하세요!

손으로 쓴 피드백이 긴장감으로 가득 찬 수능 시험장에서는 무의식적으로 여러분을 안내하
는 한줄기 등불이 될겁니다. (저의 경험담입니다)

1-2. 강의를 들은 후

인강을 듣는건 공부가 아닙니다. 인강에서 배운 것을 내것으로 흡수하는 것이 진정한 공부
의 시작입니다.

강의를 들은 다음 날, 분량이 적다면 풀었던 문제를 전부 다 풀어보시고, 아니면 내가 별표
치고 넘어갔거나 틀렸던 문제들을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다시 보는데 안풀리는 문제가 있을 것이며 이럴 때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선생님
의 강의나 해설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인강 한번 들은 걸로는 본인의 공부가 되지 않는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이걸 스트레
스 받아서 공부에 대한 의욕이 떨어지는 것보다는 그냥 편하게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보통 인강 계획은 주 5일로 계획을 짜는게 좋습니다.

주말에는 2번째에서 안풀린 문제를 다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수학 실력을 올리고 싶다면, 일요일이라도 수학은 1-2시간은 하는걸 권장
합니다. 모두가 열심히 하는 시험에서 추월할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만들어보세요)

이때는 2번째 푸는 것 보다는 기억이 나서, 처음보다는 수월하실 겁니다.

이 날도 안 풀리는 문제는, 오답노트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오답노트의 경우에도, 단순한 문제적기-풀이적기 끝이 아니라,

- 1.문제에서 어떤 조건이 제시되어있는지
- 2.이 문제는 수학의 어느 과목 어느 단원에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출제되었는지
- 3,결국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나는 어떤 접근법을 해야 하고, 어떤 공식을 써야 하는지
- 4.나는 무엇을 몰라서 막혔고,이 조건이 나올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손을 많이 쓰더라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단순 문제적기-해설 오답노트는
장기적으로 큰 도움이 안될겁니다.

1-3. 모의고사, 평가원이 다가올 때는 새로운 문제보다는 오답노트를 활용하자
수학은 크게

1. 준킬러를 얼마나 빨리 풀 수 있느냐에 따라 킬러를 풀 수 있는 시간이 생기며
2. 실수를 얼마나 안하느냐에 따라 점수가 달라집니다,

시험 전날에는, 내가 이걸 꼭 버려야겠다 하는 시험이 아니라면, 진도를 멈추고 그동안 했던 피드백과 오답노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펜으로 적어놓은 포인트는 실수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오답노트는 새로운, 낯선 문제에 대한 접근법을 찾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수능이 다가올수록, 새로운 문제를 푸는 것을 자제하고, 굳이 풀고 싶다면 연계문제집이나 실모 27문제만 푸는 등 최대한 멘탈관리에 집중하면서, 오답노트를 회독하는걸 추천합니다. 이 시기가 되면, 여러분들의 오답노트는 1권 정도는 만들어져 있으니, 이걸 중심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접근을 해야하는구나, 이런걸 알아두세요.

그리고 이 풀이가 안보이면 어떻게 해볼까? 정도의 생각은 하세요

왜냐면 이번 20수능이 계산이 상당했기 때문에 이런 기조로 앞으로의 수능이 나온다면, 다른 풀이를 1-2개 정도는 생각해보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실전에서 당황하지 않고 그냥 할 수 있는 태도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모두들 건승하시고, 추가적인 공부법이 생각난다면 또 올려보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